

# 지리산국립공원은 곤충의 생태박물관이며 쉼터이다.

## 자연공원의 주인공, 우리와 함께하는 곤충



심재현  
경북자연환경연구소장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는 얼마나 많은 곤충이 살고 있을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다. 국내에 서식하는 곤충 대략 12,000종 정도가 알려진 것과 비교해 보면 지리산에는 약 2,700여종이 살고 있다고 조사되어있다. 참으로 많은 종이 한 지역에 군집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국내 서식 곤충 25% 정도가 지리산 일대에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지리산은 거대한 곤충생태관이며 곤충박물관이다. 한반도 전체의 곤충이 멸종한다고 해도 지리산 한곳만 잘 보존한다면 한반도의 22%가 넘는 곤충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이유를 들라면 지난해 도립공원 지정 1호인 금오산 일대에서 대규모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꼬마잠자리·애반딧불이가 점차 늘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점차 사라져 가는 곤충들의 소중한 안식처이기도 한 곳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공원이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자연공원만이 아님을 여기서 당장 알 수 있다.

곤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자연공원을 찾을 때 눈을 크게 뜨고 눈높이를 맞추면 봄과 함께 찾아오는 곤충을 만날 수 있으리라 여기며 곤충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 꽃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곤충들

근무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금오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사무실 문만 나서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 행운이라고 늘 자랑한다. 꽃샘추위도 물러나고 금오산에도 이젠 봄기운이 느껴진다. 양지바른 길가에는 네발나비와 청띠신선나비가 처녀처럼 수줍게 겨울을 넘긴 기쁨에 겨워서인지 나폴대며 날아다닌다. 힘차게 날아야 하는데 아직은 힘이 겨운가 보다.

남도지방에서부터 봄 꽃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올해의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를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지리산 자락에는 매화꽃,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나고 따사로운 봄볕에 움츠렸던 생명들이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매화·산수유 목련·개나리·진달래가 꽃망울로 봄소식을 전할 때 성충으로 월동하던 나비·벌·파리류도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 따사로운 별이 내리는 양지녘에는 철 이른 양지꽃이 양중스러운 노란 꽃망울을 보이는데 어디선가 벌들이 날아들

고 있다. 이젠 봄인가 보다.

난데없이 곤충을 이야기 하다 꽃 이야기가 나온다고 느껴질 테지만 곤충과 꽃이 함께 살아온 역사는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전이다. 수천만년동안 서로를 양보하면서 함께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이다. 꽃은 곤충을 위해 꿀샘을 만들고 색깔을 아름답게 하면서 유혹의 손길을 보낸다. 이러한 유혹에 화답하기 위한 곤충들은 화려한 날개, 발달된 주둥이, 몸의 털로 꽃들에게 사랑의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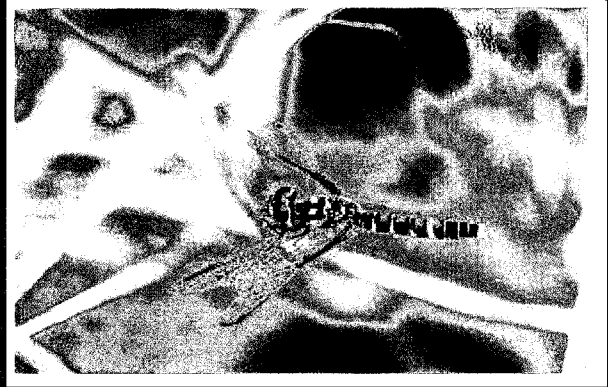
곤충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자연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희망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벌레만도 못하다'는 표현이 혹시 맞는 말일지 모른다. 올 봄 경제난으로 유난히 힘든 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곤충을 추천한다면 나비로 하고 싶다.

자연공원에는 나비의 종류가 유난히 많다. 지리산이나 금오산도 예외는 아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나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900여종이 넘는 나비와 나방이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 나비가 전하는 희망, 풍요로움

봄의 곤충이라면 나비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지리산에는 갈수록 귀해지는 나비인 유리창나비·은판나비 등이 아직도 많이 있다.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리산 주변 들판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는 나비를 꼽으라면 노랑나비일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른 봄 노랑나비를 보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다. 올 한해도 노랑나비의 행운과 복이 온 나라 안에 함께하면 좋겠다. 나비는 희망을 상징하며 부를 상징한다고 한다. 나비의 성장과정을 보면 알·애벌레·번데기·성충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므로 주술적 의미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 있다. 어떤 가정주부가 찾아와서 나비사진이나 표본액자를 한 점 주기를 희망을 해 왜 그런가 물었더니 "들은 이야기인데 나비는 돈과 복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집에





나비사진이라도 한 장 걸어놓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다”라고 했다. 나비가 주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어본다.

예로부터 나비가 주는 희망과 부요로움 때문에 결혼식 때 신부가 가져온 이불에는 나비의 문양을 수놓아 풍요와 부귀로움을 빌기도 했다. 최근 야외결혼식에 나비날리기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나비가 많은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공간일 것이다.

힘들고 지칠 때 자연공원에서 만나는 곤충 나비는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벗이 될 것이다.

#### 곤충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

곤충(昆蟲)이란 한자단어에는 가장 큰 무리를 가진 벌레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와 양의 개념이 들어 있으며 곤충(insect)이란 영어단어에는 몸이 마디로 나누어진 의미의 형태적 요소가 들어있다. 동·서양에서 곤충이 가진 본질적인 모습을 해석하는 방법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지만 모두 맞는 말이다.

지구상의 모든 벌레가 곤충은 아니다. 곤충이 되려면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조건은 바로 몸이 3부분 머리·가슴·배로 나누어지고 다리가 3쌍인 기본이 되어야 곤충이라 이름 할 수 있다.

이러한 곤충이 우리 삶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속에 함께하고 있다.

곤충은 우리 일상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곤충은 사람들에게 먹거리·약·시와 음악의 주인공으로, 의복의 재료로도 함께해 왔으며 아직도 지구상의 70%가 넘는 나라에서 곤충을 먹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백만명이 곤충으로 인해 매년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파

리·모기·일본애집개미·바퀴벌레와 사람들은 계속 싸워오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이겼다는 소식은 들어보질 못했다. 하지만 곤충은 사람들에게 불편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곤충을 통한 각종 아이디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곤충의 다리관절은 건설기계 장치 원리를 제공해주었고, 로켓 추진엔진·페르몬 향수·생물농약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곤충은 의약품·문학·음악·미술·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리와 함께한다.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중 하나인 사슴벌레와 장수풍뎡이가 아직도 지리산과 금오산에는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에 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곤충 우리나라 화폐 5천원 권 뒷면 주인공으로 등장한 곤충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사람과 경쟁에서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알려진 곤충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수 천 년 동안 잡아온 파리·모기조차도 사람들은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싸워야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식량을 갉아먹고 전염병과 사람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곤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아이들의 살가운 눈길에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곤충이 지구의 청소부 인 것을 아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장수풍뎡이·사슴벌레 등의 곤충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동물중 하나이다.

최근 곤충은 돈이 되는 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각종 애완곤충사업·의학용 곤충산업·웰빙 친환경시대를 맞아 무당벌레·벌 등을 이용한 생물 농약으로 활용되는 등, 적용 범위도 다양하기그지없다. 곤충은 새봄 곳곳의 축제에 어엿한 동반자로 초대 받는 귀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곳곳에 곤충이 주제가 되는 축제가 생겨나고 있다. 반딧불이 축제·세계나비·곤충엑스포·산업곤충EXPO·친환

경엑스포 등 이름은 다르지만 곤충이 주제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축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곤충은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들이 살아가야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이며 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지리산이란 이름이 붙은 곤충으로는 팔랑나비·지리산말매미충·지리산우리딱정벌레 등 종류가 있다. 이런 여러 곤충들이 지리산에서 살고 있다. 특히 이른 봄 따사로운 양지덕 흙길을 지키는 아이누길앞잡이의 용맹스러운 모습과 화려하면서도 품위있는 날개를 가진 작은주홍부전나비가 계속 지리산의 주인공으로 남아 주기를 희망하고, 멋지고 커다란 날개 짓으로 모든 나비의 부러움의 대상이던 왕나비가 지난해처럼 8월 무더위 속에 지리산 노고단 일대에서 때를 지어 날아오르는 장관을 해마다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지리산에서 만난 왕나비가 백두대간을 따라 북으로 이동하여 8월 중순경 금오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해 본다.

석양이 질 무렵 정령치에서 만난 불개미의 부지런한 움직임과 아령처럼 동그랗고 예쁜 모습이 다음 지리산 여행객이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국립공원과 도립공원1호인 금오산 도립공원이 계속 아름다운 우리의 친구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



지리산 정상은 아직도 겨울인 봄(천왕봉과 중산리 일대)